

AD 64-65년 경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기록된 사도행전은 AD33-65년 기간의 약 30년 간의 초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사도행전은 율법에서 은혜로, 율법주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도구인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회당에서 성전에서 교회로, 안식일 준수에서 주일로, 행위를 통한 노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옮겨졌다.

I. 사도행전의 제목

본서는 원래 누가복음과 상하권으로 되어 있었던 한 권의 책이다. 2세기 이후에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II. 사도행전의 저자와 기록 연대

1)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성경 밖의 증거(외경)와 성경 자체의 증언(내증)을 통해서 볼 때 본서의 저자는 누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초대교회부터 널리 인정되어 왔었다. 누가는 전반부에서는 ‘그들’이라는 표현 사용하다가 후반에서는 ‘우리’로 바뀐다(행 16:10-17; 20:6-16, 21, 27; 28장). 누가 직접 경험한 것임을 보여준다.

최초의 외증은 무라토리 정경(주후 170년경)에 나타나는데, 거기에서는 누가를 제 3복음서와 ‘모든 사도들의 행전’의 저자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유세비우스(325년경)는 여러 자료들을 열거하면서 제 3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임을 밝히고 있다.

본서 자체에는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몇 가지 단서들이 나타나 있다.

- (1) 누가는 바울의 동반자였다.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기술함에 있어서, 저자는 어떤 구절들에서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 (2) 의사인 누가. 단순히 어휘만을 보고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사였다고 확증할 수는 없을지라도, 사도행전의 저자가 사용한 언어, 본서에 반영된 특징, 저자의 교육 정도는 의사로서의 그의 역할과 잘 부합된다.

1세기의 의사가 현대 의사들이 사용하는 전문적 의학용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은 사실이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사였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몇몇 용례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바울이 누가를 소개하면서 그가 ‘의사’였다고 표현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골 4:14).

2) 기록연대: 본서의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주후 61-63년경 인데, 후반부인 것 같다.

3) 수신자: 본서의 수신자 데오빌로는 첫 권에 해당하는 누가복음에 명시된 바로 그 사람이다.

III. 사도행전의 구성

- | | | |
|----------------------|---------|--------------|
| 1)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 | 1:1-7 장 | 장소: 예루살렘 |
| a. 교회의 탄생 | 1-2 장 | |
| b.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 3-7 장 | |
| 2) 팔레스타인 전역에서의 복음 증거 | 8장-12장 | 장소: 유대와 사마리아 |

a. 박해와 초대교회의 확산	8-12 장	
3) 땅끝까지 전해진 복음	13 장-28 장	장소: 땅끝
a. 바울의 전도여행	13 장-21:17	
b. 바울의 로마여행	21:17-28:31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전체의 교량적 역할을 한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연속된 책으로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1:1) 일과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복음전파와 교회설립을 통해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계속하신 일을 연결해 주고 있다.

IV. 사도행전의 주제와 기록목적

본서의 주제는 1:8 에 잘 요약되어 있다. 첫째 권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진술하고 또한 둘째 권에서 예상되는 내용을 간단히 지적하면서 저술하기 시작하는 것이 당시 역사가들의 일반적인 저술방법이었다. 두 번째의 책(사도행전)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의 개요에 해당한다.

사도행전의 주제들은

- 1) 구속사는 예수를 통한 죄인을 구속하심으로 창세기부터 세상 끝날까지 연결된다.
- 2) 선교 사명은 전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다.
- 3) 교회의 근본은 그리스도이시며 교회 설립과 운영의 원동력은 성령님이다.
- 4) 성령충만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말씀과 기도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구제 봉사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다.
- 5)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민족이나 인종 또는 신분등의 차별이 없이 주를 믿는 모두에게 다 적용된다.
- 6) 사단에 의하여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사단을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
- 7)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다.
- 8) 선교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다. 사도행전 설교의 핵심 메시지이다.
- 9) 교회와 교회의 복음 선교는 영원하다.

V. 사도행전의 특징들

1) 정확한 역사적 기술. 역사가의 안목에서 볼 때 사도행전에는 예리하고 정확한 기술들이 풍부하게 나타나 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30 여년의 기간에 관한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대륙간의 기사에 관한 것이다. 시대와 장소에 관한 누가의 기술은 온갖 민족과 문화들, 여러 정부 당국들, 가이사랴에서의 재판 장면들, 안디옥과 에베소와 아덴과 고린도와 로마를 중심한 극적인 사건들로 가득차 있다. 야만인 지역과 유대인의 중심지들이 모두 취급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고고학적인 발견물들은 누가가 시대와 장소에 적절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호전적인 비평주의자들도 누가의 정치적이며 지리적인 명칭들의 구체적인 정확성을 불신케 하지 못하고 있다.

2) 문화적인 우수성. 누가를 다른 신약성경의 저자들과 비교해 볼 때, 그는 풍부한 어휘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체에 있어서도 그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의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적절한 용어들을 구사하고

있다. 때때로 그는 훌륭한 고전 헬라어를 구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1세기 팔레스틴의 아람어가 그의 표현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의 때와 장소에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세심한 습관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누가가 팔레스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을 때는 아람어가 사용되고 있다(1-12 장). 그러나 바울이 아람어 권을 넘어 헬라어 지역으로 갔을 때는 아람어가 더 이상 나와 있지 않다.

3) 극적인 표현. 누가의 재치있는 화술은 기사의 극적인 묘사에 공헌하고 있다. 누가의 표현은 지면과 비중 배열에 있어서도 베드로와 바울을 세심하고 조화있게 잘 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도 사건의 다양성(변화)과 생동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누가의 표현법은 사건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고대 문헌 그 어디에도 파선한 장면을 해상 용어들로써 표현하는 데 누가보다 뛰어난게 기록한 곳은 없다.

- 4) 객관성 있는 기록. 누가가 자료를 주의깊게 배열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기록의 정확성을 손시키지 않는다. 누가는 초대 교회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좋은 점만이 아니라 나쁜 점들도 기록함으로써 그 기록의 객관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불화가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66:1), 바울과 바나바간의 불화도 기록되어 있다(15:39). 분열과 차이점들이 인정되어 있다. (15:2;21:20,21)

VI.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

- 1) 부활하신 그리스도
- 2)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 3)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

VII.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 핵심 절, 핵심 장

- 1) 핵심 단어: 교회의 확장
- 2) 핵심 절 : 1:8; 4:12
- 3) 핵심 장 : 제 2 장